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8: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Titus 3:4-8

Date preached: February 27th 2022

Scripture: Titus 3:4-8

4 But when the kindness and the love of God our Savior toward man appeared, 5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6 whom He poured out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7 that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8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these things I want you to affirm constantly, that those who have believed in God should be careful to maintain good works. These things are good and profitable to men.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5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6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7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8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계도 유익합니다.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what Paul told Titus to remind his congregation. It's one of the sad realities of ageing that we can become forgetful or absent-minded. It's interesting that both the young and the old need to be reminded of things, albeit for different reasons. The old need reminding of things they can no longer remember. The young need to be reminded of things that they find inconvenient to remember. In Crete the people needed to be reminded of things that perhaps they found unpalatable, things they had conveniently forgotten.

As we said last week the Cretan Christians had a difficult existence. They had to live under the suspicious and watchful gaze of the Roman authorities. The Romans thought Christians were weird and strange. They were committed to just one God and would not pay homage to the emperor. Therefore they posed a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empire.

Christians in Crete also had to contend with their pagan friends and neighbours. They were watching them closely to see whether their lives matched their Christian beliefs.

The Christians claimed to be loving, tolerant and peaceful, but how would react when their beliefs or ideals clashed with life in the real world. So Paul wrote to Titus to remind the people of the teaching he had given them before.

This teaching was focused on how we are to live and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us. Let us briefly review what Paul said.

He dealt first with how we are to deal with those God has placed in authority over us. We live in societies that are governed by powers and authorities. At a local level we have councillors,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servants. At national level we have politicians, a prime minister or president and maybe a king or queen. The very important point we are to remember is this. Whoever governs us has been put in that position by God. It is for this reason that we are to

willingly obey the laws or rules they impose. Provided of course that they do not ask us to go against what God commands.

Paul then turned to address how we are to deal with other people in the world. We are not to speak badly or evilly about people. We are not to slander them, or attempt to destroy their good name or reputation. We are to be peaceable people. This means we are not to be contentious, argumentative or always stirring up trouble. We are to be gentle and humble, and as best we can try to live at peace with our neighbours.

Paul then goes on to remind us that we are not to look down upon others. We are not to gloat that we are in the light and everyone else is lost in darkness. And we are certainly not to think that we are better than other people. We are to remember that if it were not for God's grace and mercy we too would be in the dark. We once were wicked and evil sinners.

In today's passage Paul will remind us of these important truths.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의 회중을 상기시키기 위해 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거나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노화의 슬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비록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일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억하기 불편한 것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테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들이 편리하게 잊어버린 것들에 대해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했듯이 그레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의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운 시선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신에게만 헌신했고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레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지 보기 위해 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고 관대하며 평화롭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믿음이나 이상이 현실 세계의 삶과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전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주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수준에는 시의원, 공무원 및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치인, 총리 또는 대통령, 그리고 왕이나 여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들이 부과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기꺼이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다음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쟁을 벌이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이웃과 화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때 사악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Introduction

If I asked you what brings you the most joy in life what would you say? You might say your family. Spending time with them brings me the greatest joy. You might say your spouse. What a blessing and joy they have been to me. I cannot imagine what my life would be without them. You might say that your job or career brings you your greatest joy. This may especially be true if you are doing something you are truly passionate about. You might say you hobbies or pastimes. I experience great joy when I get to paint, read a great book or play golf. You might say your possessions. How joyful I am when I get to ride around on my Harley Davidson. As a Christian what should your answer be?

Your answer should be as follow;

My greatest joy in life comes from my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e full salvation He has provided for me.

This is what lies beneath what Paul is teaching us here. Why should I be motivated to live a good life? Why should I obey those in authority over me? Why should I treat other people with kindness and respect? The answer is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for you. The joy that you should feel for all He has done for you is motivation to live the life to which He calls you. Let's look at today's passage.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들 없이는 내 삶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경력이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취미나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훌륭한 책을 읽거나, 골프를 칠 때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유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돌아다닐 때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대답은 어떠한가요? 귀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관계와 그분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완전한 구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의 밑에 깔려 있습니다. 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느껴야 할 기쁨은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삶을 살게 하는 동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 But when the kindness and the love of God our Savior toward man appeared,

Paul takes us here to the greatest moment in all human history. He takes us to the very moment that God Himself, in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stepped into this world.

God had always of course been active and engaged in His creation but The Lord Jesus Christ taking on human flesh (the incarnation) was something completely new and different.

The incarnation was God's rescue plan being put into action. God was not obliged to rescue His creation. Given our woeful record of rebellion and disobedience we had every right to expect God's

wrath. God would have been perfectly righteous and just to come to earth and punish us. This was what we deserved. But that was not what happened. When the Lord Jesus came He was full of love and kindness. He represented the perfect expression of God's love. In the next verse Paul explains upon what basis our salvation came about.

바울은 우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체인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발을 내딛은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성육신)는 완전히 새롭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구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의 비참한 기록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근거로 왔는지 설명합니다.

5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The most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any other religious system in the world regards how a person is saved. Christianity is unique in one regard. It is the only religion in which it is exclusively God who takes the initiative to save. In every other religious system an adherent must do something in order to be saved. Typically they have to do good things, or at least do more good than bad. They must carefully follow set rules or laws. They must remain faithful in order to earn their salvation. In Islam for example we can picture a person's eternal destiny being measured in scales. On one side go good works and on the other go sins. Allah then evaluates the scale. Is there more good than bad? It is only at this point that he decides whether to save the person or not. This might come after a lifetime of being a faithful Muslim. So in Islam a person cannot know until the very final moment where their eternal destiny lies. I don't know about you, but I am glad that I have the assurance of salvation. Not because of anything I have done but because it was secured for me by the perfect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our salvation is not based on any works of righteousness we have done. We are not saved because we do lots of work for charity. We are not saved because we go to church every Sunday. We are not saved because we read our bibles or pray. We are not even saved if we have been baptised. All of these things whilst good in and of themselves do not, in fact cannot earn us salvation. The reason we are saved all rests upon God's mercy. This means we have no reason to boast or brag. God didn't elect you because you earned or deserved it.

Paul then goes on to talk about the exact nature of our saving. He tells us that it comes about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Spirit**. When Paul talks of "washing" here he could be referring to water baptism. However it is equally possible that the washing here refers to the conversion process. He may even be thinking of the spiritual cleansing of the believer that comes about by the Word of God through faith.

I am most inclined to think that Paul is using "washing" here as a metaphor for spiritual cleaning and or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hat he means is that wh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we are cleansed (washed) of our sins, renewed and born again into new life. This is supported by what we read in verse 6.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 체계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구원을 위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인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체계에서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좋은 일을 하거나 적어도 나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법률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충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우리는 저울로 측정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는 규모를 평가합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있습니까? 그가 아닌 사람을 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은 충실한 무슬림 생활을 한 후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얻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바울이 “씻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물침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척이 변환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신자의 영적인 정결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바울이 여기서 “씻음”을 영적인 청소나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함(씻음)되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 절에서 읽은 내용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6 whom He poured out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What is it that is poured out on believers abundantly? It's not an “it” but a “He.” This verse tells us that God in His great mercy poured out the Holy Spirit on us in great measure. We did not just receive a drop, or a small portion of the Holy Spirit. God in His grace gave us the Holy Spirit in abundance or fullness.

We know that the appearance of the Holy Spirit in His full and greatest expression only came about through the work of Christ.

In the Old Testament the Holy Spirit came upon, or influenced people for a specific task or for a limited time. However once the Lord Jesus Christ had completed His work and returned to the Father then the Holy Spirit was sent in His fullness. We read about His dramatic arrival on Pentecost (Acts 2). Now God in His mercy and grace gives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all He calls. It does not matter about your race, background or status. All true believers are richly blessed by being indwelt by the Holy Spirit. He is constantly with us to lead, guide and teach us.

믿는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지 한 방울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

성하거나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고 위대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임을 압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일을 위해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임하거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후에는 성령이 충만히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그분의 극적인 도착에 대해 읽습니다(행 2 장). 이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그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인종, 배경 또는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7 that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Paul next moves on to talk about the final objective of the new life we have been given in Christ. God has chosen a people to save. He sent a savior to do all the work that was necessary to secure His elect. He then sent the Holy Spirit to spiritually cleanse those He chose.

Now through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we are justified. Justification refers to God's declaration that a sinner is now righteous. A good way to think about it this is to picture a court room. The accused (you and me) stands before a judge (God). We are guilty of breaking God's laws and should be declared unrighteous. We should be punished. However this is not what happens. The reason that we are not punished is that the Lord Jesus Christ has taken our place. He took our sins upon Himself and paid the penalty, which was death upon the cross. Now God looks at us in the courtroom and sees Jesus instead. The penalty of sin has been paid by Christ so God declares us righteous. Free from all guilt.

What was God's objective in doing this? Why did God extend this unimaginable and undeserved kindness to people like you and me? It was to make us His heirs. The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defines the word *heir* as, "one who inherits something or who is entitled to a future inheritance." The Greek term translated "heirs" *klēronomos* (klay-ron-om'-os) refers to "those who receive their allotted possession by right of sonship." In other words, because God has made us His children (John 1:12) we have full rights to receive His inheritance. This means as His beloved children we get to enjoy God's riches, the greatest of which is the gift of eternal life in His presence. That is our great hope and expectation. No matter how hard or difficult life is here on earth you can look forward to a blissful eternity.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최종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택하신 자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는 죄인이 이제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법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피고인(너와 나)은 재판관(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범했으며 불의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당신 자신이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인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법정에서 우리를 보시고 대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 상상할 수 없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이커 성서 백과사전(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에서는 상속자라는 단어를 “무언가를 상속받거나 미래에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klēronomos(klay-ron-om'-os)는 “아들 자격으로 할당된 소유를 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1:12) 우리는 그의 기업을 받을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며, 그 중 가장 큰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자 기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한 영원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8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these things I want you to affirm constantly, that those who have believed in God should be careful to maintain good works. These things are good and profitable to men.

Paul next reminds Titus of a very important truth. It is that the things he has outlined in verses 4-7 are to be constantly and confidently affirmed and proclaimed. These truths are good and beneficial for us all to hear. As followers of Christ we should never become tired or numbed to hearing about what He did for us. It is the truth of God's grace and mercy towards us that should bring us the greatest joy. Being constantly reminded of these things serves at least two purposes.

Firstly it keeps God's sacrifice for us fresh and vital. It means we never forget or minimise its importance and impact in our lives. Today there are some Christians who want to minimise the teaching about sin for example. It makes them feel uncomfortable. They worry that non-believers will be turned away if we begin our evangelism by telling them how bad they are. Instead they would rather focus on love and grace.

The problem with such thinking is that God's real love and grace can only be understood after realising how bad we were. Christ's willing sacrifice upon the cross can only be seen in perspective when we realise that He did it for terrible people like us. This is why these truths must always be affirmed.

The second reason we are to affirm these things is that they serve as personal motivation. Knowing who we were and what God did for us should encourage us to do good things for others. Christ sacrificed for us, and we are to model His example in our lives. W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our good works act as tangible evidence for people looking at us. Our words only have a partial impact. It's very easy to say, I'm a Christian, I go to church every Sunday, I believe what the bible teaches. But when our words are backed up by action then people really take notice. Let me give you an example.

Imagine a young woman with two small children. One day she suddenly loses her husband in a tragic accident at work. At the funeral she is approached by two professing Christians. The first Christian says how sorry they are, and that they will help the widow by praying for her. The second Christians also offers to pray for the widow. However not only will they pray, but they will also visit her regularly and do any odd jobs that need doing. They will also help babysit the children so that she can rest. Now which of these two Christians is most profitable? Which best demonstrates God's grace? Which serves as the best advertisement for the Christian faith?

다음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4-7 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확신하고 확증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가 듣기에 좋고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듣는 데 지치거나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적

어도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을 신선하고 생생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그 중요성과 영향을 결코 잊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 죄에 대한 가르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나쁜지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면 그들이 외면할까봐 걱정합니다. 대신 그들은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깨달은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끔찍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진리가 항상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긍정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들이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갑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뒷받침되면 사람들은 정말로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녀는 직장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갑자기 남편을 잃는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두 사람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과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과부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과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하고 해야 할 모든 이상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그리스도인 중 누가 가장 수익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좋은 광고는 무엇입니까?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논평을 할 것이 있습니다.

1 Being constantly affirmed

If you were told to do something "constantly" what would your understanding be? If for example the doctor said that for your health you should constantly take krill oil tablets. Would your understanding be that once a month was sufficient. Perhaps one tablet whenever you remembered. A few tablets in January and then nothing until September. No you would recognise that you needed to regularly and often take the prescribed tablets.

So what should our understanding be of Paul's teaching that we are to constantly affirm the truths of the faith. It means of course that it is something you should be doing regularly and often. How do we feed on God's nourishment? We do it through reading and hearing God's Word. Being daily in God's Word reading and studying, and in regular attendance at church. So let me encourage all of you listening. Never allow God's truths to be forgotten, or to become tired or dull. Remind yourselves of them often and allow them to motivate and guide your life.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크릴 오일 정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한 경우.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기억할 때마다 아마도 한 태블릿. 1월에

몇 알을 먹고 9 월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처방된 정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확증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은 당신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것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그러니 듣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잊혀지거나 지치거나 둔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을 자주 상기시키고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2 God's grace is evidenced in good works

It is faith alone that saves us. But that faith should never be alone. Our genuine faith should always be accompanied by good works. If we say we have faith but have no works to evidence that faith then our faith is a dead one. Let us then show the world that our faith is strong and vibrant through good works.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는 항상 선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증거할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선행한 일을 통해 강하고 활력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줍니다.